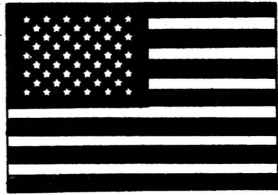


JAN 1983 Vol. 12 No. 1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Paul H. Shin, Publisher

Kun H. Park Editor

Phone: (206) 362-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 신년인사
- ※ 새회장단 · 임원 프로필
- ※ 회장단 주지사 방문
- ※ 4월 23일 『한국의 날』 선포
- ※ 1983년도 사업 · 행사계획
- ※ 조찬기도회 · 현판식 성료
- ※ 한인사회 소식
- ※ 영문 페이지

1

JANUARY

고향에서 옮겨온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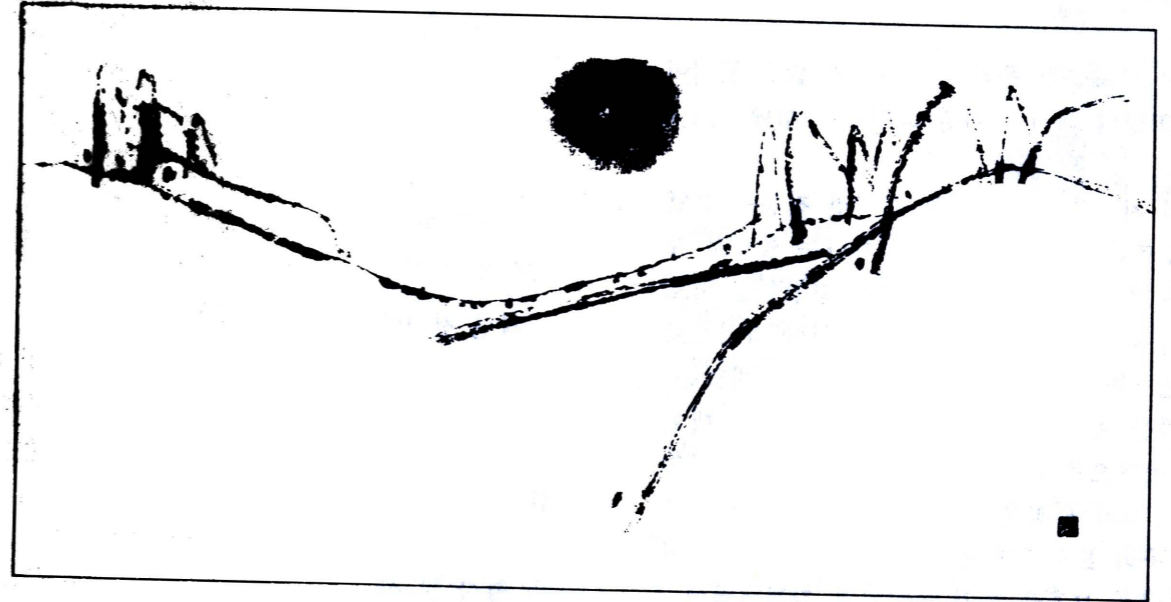
한일각

완전히 새로운 경영방침 아래 다시문을 열었습니다.

박 창 모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206) 587 - 0464 • 0465



신년회보를 내면서

한인회보는 한인사회의 생각과 말과 얼굴이다.

오늘을 살고있는 이곳의 우리 이민세대가 겪는 특유의 체험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있는가를 우리자신의 말로 표현해서 서로를 더 잘 알게해주는 대화의 매개체로서 한인회보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모두가 함께 가질수있는 지면의 공간에 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있는 희노애락, 우리를 일깨워주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골고루 추려서, 담을때 이 회보가 정말 우리의 얼굴다워 질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여 과거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온 한인회보를 이제 크게 불어난 아지역 우리 한인가족 모두에게 좀더 잘 읽히고 아낌을 받게 만드는 노력을 배가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느낀다. 아낌을 받고 모두에게 잘 읽히게 만들려면 회보의 내용이 좀 더 알차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반향을 일으키게 하는 글들이 많아야 할것이다.

그런 글은 잘 정리된 생각을 표현한 글이어야 할것이다. 그런 글들을 찾아내어 회보를 꾸미는 것이 앞으로 한 해동안 이 회보를 맡은 편집부의 짐이 아닌가 싶다.

어려웠던 작년 한해는 우리 한인사회에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만든 기회도 되었던 것 같다. 여러갈래 엇갈린 의견들이 교차되고 충돌되는 가운데 받은 충격뒤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침착하게 정리해보는것도 중요할것 같다. 이런 뜻에서 신년 첫 회보의 주제를 『한인사회의 좌표』로 설정해 보았다. 여기에 실린 귀중한 글들이 우리가 다 같이 현재와 장래에 대한 생각을 좀더 깊이 해 볼수있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달이 가면서 보다 나은 회보를 만들수 있도록 교민여러분들로 부터 각 방면에 걸친 많은 기고가 있기를 바라며, 회보 제작에 대한 건설적인 조언과 충고가 있기를 바란다. (K P)

동트는 해녘은 우리 한민사회에 밝은 햇살이
피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함
니다.

지난해 시해를 한민사회는 커다란 진동음 겪었
습니다. 『한인회 비영사관』이라는 잇수르 포
민사회가 간라전 상황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서로
적절한 대화는 나누지 못하고 타의적 감정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지역 한인회역사상 유례없는

중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은
주는 빼어낀 포종음 단겨 품으로서 감정대립에
여물도 우리 모두에게 냉정한 자제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결국 법정의 판정도 국민사회의
의견으로 비호되기 까지하는 상치를 받았
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정의 판정도 국민사회의
의견으로 비호되기 까지하는 상치를 받았

있습니다. 우리 교포사회에는 다양한 주정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금액히 팽창된 교포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어려운 활로를 개척하다 보
면 각자가 겪고있는 체험 하나 하나가 별개의 진
실로 주장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민 2만명이

있는 곳에 2만개의 진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진실이 뿔뿔이 엇갈려 흐터져 있
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 교류
하여 여러 의견에서 공용된 동기를 찾을 수 있을
때 교민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수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인회는 물론 교포사회내의
여러단체들은 이처럼 수많은 “진실” 벽에 가
려져있는 의견들은 뛰어내고 뛰어넘어 커다란 방향
을 설정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
고 믿는 바입니다.

올해 한인회를 이끌어 가야 할 중책을 맡은 저희
이사, 임원 및 회장단은 무엇 보라도 교포사회의
발전문제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건전한 의
욕의 표시로 신중히 받아들리고 중중 공개회의나
지상 토론을 통하여 이견속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 할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응
교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제위께 삼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주년 선거별 저희들이 약속한 ①한인회관 건립추진 ②경도 단체지원 ③한글 학포 설립지원 ④한인회 의 행사 및 사업계획과 진척사항은 한인회정보를 통해 하여 실천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그의 여러가지 한인회 고 물위있는 한인회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 여 국민들께 새로운 소식과 생활정보를 드리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토론의 광장을 제공해 드릴것 도 함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이 일인에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 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종 미국사회에서 훌륭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빼어난 자질과 역량을 결비한 우리 한인들이 매아로 몽취진 소수민족으로 한차례 비약 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일에 충실하면서 시야를 넓혀 밖으로 진출적인 기상을 가지고 후진을 위한 미래의 국민제위의 각가정에 신년의 소망이 충만히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면서 올해 한인회의 세부들뿐 인 저희들에게 많은 재적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83년 새해를 맞으며

시해를 -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신 호 변

국민여러분!

변영과 만복이 깃르고 모든일이 뜻대로 잘 되 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별과 경원이 부족함이 한인회 이사장 의 중책을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고 추구스려움은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오직 순수 한 마음에서 조급이라도 이 고장에 조용한 한 인 사회를 만들고 교포사회발전이 이바지 하려 는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볼까 합니다.

평온한고 친숙있는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는 우리 모두 개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한인사회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것은 일면 우리들이 교포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한인사회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으로는 선거 를 통하여 일단 한인회 대표가 뽑혔으면 누가 회장이던 그를 반기고 도와서 귀중한 시간을 낭 비함이 없이 여러 의견과 여론을 잘 파악하여 양관 활동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할것이라고 불 니다. 우리 각자는 항상 전체한인사회의 이익을 생각하여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고, 자신의 명 예욕과 개인간의 감정과 질투심을 버리고 끈조 끈에 현혹됨이 없이 사선에 임각하여 사리를 맺 정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새 각 합니다.

우리 한인회가 하여야 할 일 가운데 회회개선을 위한 권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일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한인회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뒤에 숨어서 욕하지 말고

아려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우리고장은 물 맑고 산 좋고 삼기좋은 곳 입니다. 이렇게 좋은곳에서 우리 한인사회가 인내 와 아량, 그리고 만보다는 행동으로 서로 목적의 좋게 오손 도손 살아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거움 이민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 자손들 에게도 자라느려움 전들음 물려줄수 있도록 다 할 게 노력합니다. “물치면 산고 헤아지면 죽는다”고 해방적후 귀국 제 일성으로 호수하던 휴양 백반의

여러분들의 각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 니다.

1983년 신년 한인회에 참여하면서

시해를 -와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이 옥 탈



경애하는 교민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에찬 계해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그리고 국지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없었던 복잡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주변 정세속에서도 우리의 조국은 안정과 번영을 병행해가면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계속 이룩하여 왔으며 이제 탄탄한 기반위에 더욱 힘찬도약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우리 교민사회도 그동안 착실히 성장 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행사등을 통하여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고유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미국사회에 더욱 과시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조국을 불진데, 해방 38년이 지나는데 동안 뜻한 변화와 고난속에서도, 특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는 북한공산집단과의 대치상황에서도, 우리국민은 일치단결, 노력한결과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으로 이제 자신과 희망에찬 국민이되어 개발도상국의 선두적 모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음을 여러분들이 잘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지난한해동안에도 발전과 전진의수레 바퀴를 더욱더 가속시켜 안정과 성장의 반석을 가일층 다져 놓았습니다.

한편 우리 교민사회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악예술단 공연과 예술제 및 해상생도 훈련함의 당지방문과 관련된 제반행사를 통하여 우수한 선진문화의 민족임을 미국사회에 과시하였고, 우수한 미국언론기관의 각광과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바, 이는 모두 교민 제위께서 합심단결하여 성원하여주신 덕택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

저는 재직 10여 개월을 통하여 이 지역 우리교민 사회가 근면 절약하는 생활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 방면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떨침으로서 훌륭한 소수민족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는것을 직시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조국의 발전과 직결되는것으로 조국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뭉칠때 국력은 더욱 커지고, 우리는 세계속의 한민족으로서 떳떳이 어깨를 펴고 더욱힘찬 전진을 계속할수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86년 아시아 게임과 88년도 세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조국이 중진국으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입증하는 엄연한 사실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이요, 조국의 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명심하시고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즐기찬 전진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민족의 얼을 이곳 미국사회에 더욱뿌리 깊게 심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아 교민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시는 일 모두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새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83년 1월 1일

주 시애틀 총영사 이 문 수 배

『시』

너의 내일



배 동 한

또 하나의 새로운 태양이다.

햇살이 낮설게 쏟아질
영원한 이역의 꿈마을이다.

무지개 빛으로 펼쳐질 광장에
휘휘 날으려는
너의 겨드랑에
여린 날개가 돌아난다.

아직은 못견디게 겨드랑이
아파 슬퍼도
가슴에 잠든 보석이
눈뜨는 날을위해
한껏 숨 모두고

낮설은 이역의 마을에
청동색 비둘기때 파닥임처럼
박수 소리 분수로 터질
그 날의 축제가 있기에
한사코 내친 걸음이다.

쏟살이어라.

워싱턴 한인루터교회에서 금요일야 기도회를

마치고 나올 막내둥이를 향해-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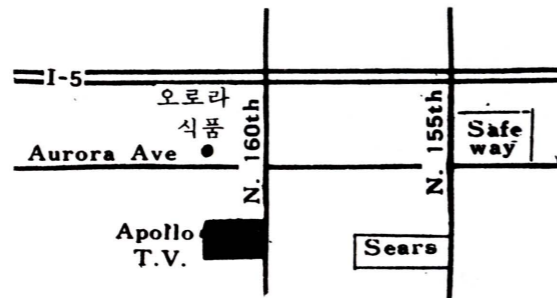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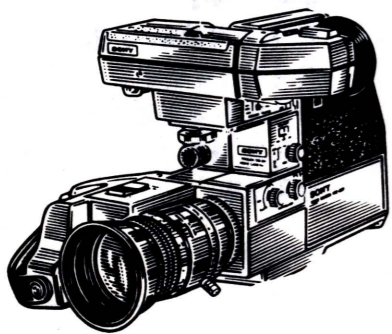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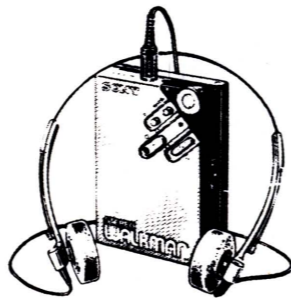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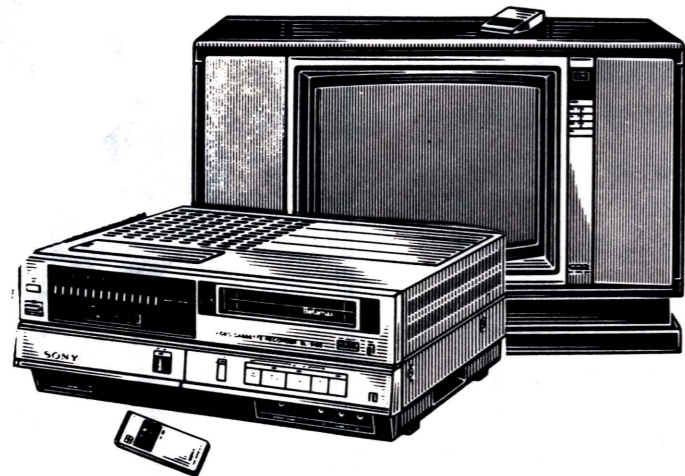
시애틀 525 - 9222

타코마 588 - 2500

아폴로 TV 개업안내

SONY · RCA

● 한국 비디오 테이프 대여



주 소 : 916 N. 160th St. Seattle, WA 9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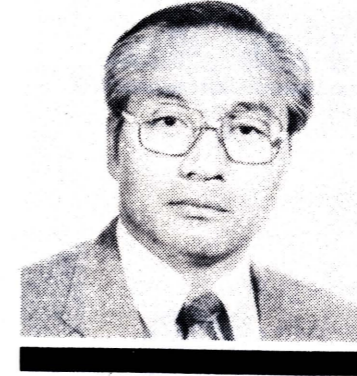
영업시간 : 아침 9시~저녁 9시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전 화 : 546-4222(씨애틀) 531-6370(타코마)

1983년 한인회 새 일꾼들

**** 프 로 필 ****

***** 회장단 *****



회장 신 호 범



부회장 : 과 중 세



부회장 : 오 계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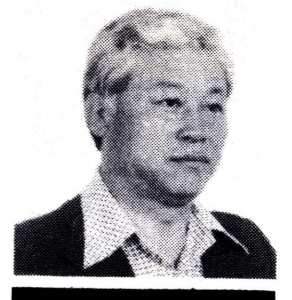
***** 임 원 *****



총무 : 조 성 옥



재무 : 혜식 스미스



섭외 : 이 현 진



경노 : 이 춘 영



부녀 : 이 성 덕



교육 : 백 경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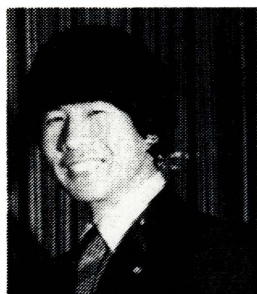
홍보 : 허 권



체육 : 이 신 남



문화·예술 : 이 창 규



청년 : 이 정 언



봉사 : 김 영 남



조직 : 박 봉 수



편집 : 박 건 홍

한인회소식

회장단 스펠만 주지사, 먼로 주무장관 예방

주정부 "한인사회와 강한유대 갖고싶다"



존 스펠만 주지사와 악수하는 신호범회장

신호범 신임회장단 및 조성욱 총무부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은 1월 5일 오전 10시 올림픽아 주청에 있는 주지사실로 존 스펠만 주지사를 예방하고 약 45분 동안 한국 및 이지역 한인사회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이문수 총영사도 참석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시애틀 새한인회 대표자들이 워싱턴주 행정수반에게 새해 인사를 겸한 예의를 표하기 위한 이 방문은 이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신회장은 스펠만 주지사에게 워싱턴주내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이 3만명을 초과하는 커다란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시민권자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투표권 행사나 주내의 정치적인 발언권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암시했다. 한인교포사회가 이처럼 성장했음을 알게된 스펠만 주지사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함께 표시하면서 워싱턴주를 위하여 한인사회가 훌륭한 발전을 통하여 기여해 줄것을 자못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상업·경제발전부장관 리차드 스톱퍼도 배석한 이요담에서 스펠만 주지사는

워싱턴주는 지리적 위치나 경제활동의 성격으로 보아 동양과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 시키고서 특히 한국과의 교역 증대에 큰 관심을 표시하면서 주내의 한인 교포들도 이와같은 국제간의 경제교류에 많이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톱퍼씨는 올 3·4월경에 무역진흥을 위해서 스포 캐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 무역 박람회에 한국 및 한인회사, 실업가들이 많이 참석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지사와의 환담을 끝낸후 한인회장단은 이어서 펠프 먼로 주무장관실을 예방하고 장시간동안 좀더 구체적으로 한인사회와 주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먼로 장관은 "우리는 코리언 커뮤니티와 강한 유대를 갖고 싶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슨문제든지 주정부에 알리거나 요청할 일이있으면 서슴치 말고 연락해 주기를 당부했다. 반면 한인회측도 한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일을 주정부에 수시로 알려주어 서로 더 잘 알수있는 길을 닦아 보자고 제의했다. 공식 접견이 끝난후 먼로 장관은 특별한 우정의 표시로 총영사 및 한인회 대표 전원을 오찬에 초대하고 약 2시간 30분동안 이모 저모 한인사회에 대한 협조방안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주지사와 회장단

4월 23일을 『한국의 날』선포 계획

신임회장단의 주지사 방문이 있은후 스펠만 주지사는 주시애틀 총영사 앞으로 보낸 1월 12일자 공식 서한에서 한인회가 계획하고있는 올 4월 23일을 『한국의 밤』 행사에 맞추어 이날을 『코리아 데이』(한국의 날)로 선포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한국의 날』은 1975년 덴 에반스 전주 지사에 의하여 같은날에 처음으로 선포된 바 있다.

스펠만 주지사는 또한 한인회가 계획하고있는 『한국의 날』 행사에 자신을 포함한 주정부 대표자들이 다수 참석할것을 재차 다짐하고 이날 주정부로 부터 한인들의 행사에 공식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신호범회장은 1월 5일 올림픽아 예방시 주지사에게 4월 23일의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줄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했으며 주지사는 그자리에서 “기꺼이 수락한다”고 약속한바있다.

시애틀 한인회는 4월의 『한국의 밤』 행사를 작년엔 없었던 『아리랑의 밤』의 색채를 가미하여서 각종 연예, 예술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민을 위안하고 정부사회의 인사들을 초대하여 한인사회의 참다운 면모를 미국사회에 소개하려고 계획하고있다.



『한인회 활동』

회장단, 이사, 임원 총영사관 예방

신호범회장단과 한인회 이사, 임원 8명은 1월 11일 오후 3시 총영사관을 공식방문하고 신임인사 및 앞으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영사관과 한인회와의 협조문제에 관하여 약 2시간 동안 토의했다.

신호범회장은 앞으로 1년동안 한인회가 구상 추진하고있는 각종 사업과 행사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의 실현과 한인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사관과 한인회가 서로 원활히 협조해 나갈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교포사회에 화목과 안정을 이룩하는것이 올해 한인회가 목표로 삼고있는 방향임을 밝히고, 앞으로 각계 각층과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교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종합하여 한인회 활동에 반영시키도록 하려는 할것인데, 이에대하여 영사관측에서도 적절한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문수 총영사는 현재 미국내에 공식 집계된 교포수만도 71만 6천명이고 실제로는 1백만명 가까이 살고있는것으로 추산되고있는데 국가를 대표하고있는 총영사관으로서는 미주교포들이 서로 단합하고, 특히 먼저 자리잡은 교민들이 최근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도와 화목하고 안정된 교포사회를 이룩하여 모국발전에 이바지 할수있는 힘이되기를 바라고 때문에 이런일을 하는 한인회의 활동을 힘이 자라는데 까지 돕겠다고 하였다.

이총영사는 또한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관하 4개주 총 5만여명의 교포를 상대로 수행하고있는 대교민 업무가운데 교포들과 보다 친밀감을 조성하기위해서 현재 영사관을 확장하고 있으며, 영화필름, 도서등 홍보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실을 제공하는등 교민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한인회는 물론 교포사회 각단체도 영사관의 시설을 앞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회장단과 총영사는 특히 올 4월 『한국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6. 25 동란 참전용사, 한국고아 입양부모등 한국과 관련된 미국시민들과 미국 정부 사회 요로 인사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한인회의 활동에 영사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것에 합의했다.

『한국의 날』 행사에는 주미대사 또는 유엔대사

를 시애틀에 초청하여 이지역 정부사회 인사들과 교민들이 모두함께 자리를 같이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한국인의 능동적 자세를 보여주는데 함께 노력 할것도 다짐했다.

조찬기도회 성료

한인사회의 친목과 단합을 위하여 한인회가 마련한 1983년도 조찬기도회는 예정대로 시애틀 SEA-TAC 공항 HOLIDAY INN 연회실에서 1월 22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이문수 주시애틀 총영사 및 손학봉목사등 시애틀 지역 교역자들을 포함한 약 150명의 내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조찬기도 회에서 신호범 한인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장하는 교민사회가 무엇보다도 화목과 단결을 토대로 발전해야 될것임을 강조하고 각교회 교역자 및 한인사회의 각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인회를 많이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동립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하여 한인사회에서 그간 일어났던 모든 과거는 일체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용서하고 마음을 통하여 손잡고 함께 일하자고 호소하였다. 내빈 대표로 이문수 총영사는 3만 5천명의 이지역 교민사회 대표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윤리도덕을 실천하면서 미국사회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쌓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기도회는 시애틀지역 교역자 협회 손학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조국, 시애틀한인사회 및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준 고필균, 송찬우, 김영규 목사는 모두 우리생활에서 남에대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고 했다. 이날 기도회 순서중 설교를 담당한 박기영 목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자” 하는 설교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보다 충실한 한인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사회 전체를 위하여 각자가 “씩는 밀알이 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축도는 정연발, 정태원 목사가 각각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날 조찬기도회는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심기 일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인회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PARK'S GALLERY

박 화 랑

- * 각종 표구 액자전문
- * 서예 · 수예 · 동양화 병풍 · 판매 및 제작
- * 각종 고급 서양화 특별염가 판매

사무실 : 762 - 5410
집 : 242 - 6801

월~토 오전 9시 ~ 오후 5시
1515 ROXBURY STREET S.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PARK'S SIGN & PAINTING

페인팅 및 간판제작

- * 각종가판제작
아크릴포함 · 한글 · 한문 · 영문
각종특수체 및 조각간판
- * 내부 · 외부 페인트 및
곰보벽 수리전문
- * 파워 러쉬 크린 전문
(페인트 하기전 특수크린)

사무실 : 762 - 5410
집 : 242 - 6801

월~토 오전 9시 ~ 오후 5시
1515 ROXBURY STREET S.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1983년도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사업 및 행사 계획표

- 1월 5일 - 워싱턴주지사 John Spellman 및 주무장관 Ralph Munro 공식 방문 (회장단 및 임원 일부 참석)
- 8일 - 신·구 회장단 인계 인수식
- 11일 - 주 씨아틀 총영사관 방문 (회장단, 임원, 이사)
- 22일 - 조찬 기도회 (8:00 A.M. Holiday Inn, Sea-Tac Airport)
- 28일 - 한인회 사무실 이전
- 29일 - 한인회 사무실 현판식 (오후 2시, Lake City Elementary School)
- 2월 중 - 시민권자 협회 발족 (일자 추후 발표)
 - 씨아틀 시장 Charles Royer 및 씨아틀 주변도시 시장 예방
 - 사무실 상근직원 채용 (2월 11일부터 근무)
 - 한국상사, 지사장 간담회 (일자 추후 발표)
 - 한인 회관 설립 위원회 재구성 (일자 추후 발표)
- 3월 중 - 3.1절 행사 (장소: 한인회 사무실 건물내 강당)
 - 행사내용: 기념식, Reception 및 영화 상영
 - 한인학교 개강 (일자 추후 발표)
 - 제 1회 Seminar 개최 (추후 발표)
 -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전반적 토의

- 4월 중 - 한인학교 학예회 개최 (일자 추후 발표)
 - 한국 고아 입양 부모 초청 만찬회 (일자 추후 발표)
- 23일 - 주지사에 의한 "한국의 날" 공식 선포 및 "한국의 밤" 행사
 - * 장소 및 세부 계획 추후 발표
- 5월 중 - 어린이 날 행사 (일자 추후 발표)
- 6월 중 - 한인 회관 건립의 최종 회의 및 회관 구매 (일자 추후 발표)
 - 제 2차 Seminar (일자 추후 발표)
- 25일 - 6.25 참전 용사 초청 만찬 (장소 추후 발표)
 - Miss 교포 선발 대회
- 7월 중 - 한인회관 건물로 이사 계획 (일자 및 계획 추후 발표)
 - 경노 잔치 (일자 추후 발표)
 - "Sea Fair Parade" 참가 (세부 계획 추후 발표)
 - "International Food Festival" 참가 (세부 계획 추후 발표)
- 8월 중 - "Vancouver - Seattle" 합동 야유회 (일자 추후 발표)
 - 8.15 행사 거행
 - 제 3차 Seminar (일자 추후 발표)
- 9월 중 - 씨아틀 지역 단체별 체육대회
 - 선거 관리 위원회 구성 및 발표
- 10월 중 - 10.3 개천절 행사 거행 (일자 및 세부 계획 추후 발표)
 - 제 4차 Seminar (일자 추후 발표)
- 11월 중 - 정기총회 및 선거 (일자 추후 발표)
- 12월 중 - "아리랑의 밤" 행사 거행 (일자 추후 발표)

한인회 활동

신구회장 업무 인수인계

신호범, 엄명보 신구회장은 1월 8일 다운타운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동일 12시 30분부터 약 2시간동안 계속된 이 인수인계식에서 엄명보 전회장은 신임회장에게 한인회 사무실 집기, 비품총 47점을 넘겨주었고, 1982년도 한인회재정의 수입지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음 차감잔액 \$ 497.28을 인계했다. 엄명보 전회장이 준비한 『1982년도 업무인수인

계서』에 나타난 1982년도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재정규모는 수입이 총 \$ 27,274.85이었고 지출이 총 \$ 26,777.57으로 차감잔액이 \$ 497.28이다. 엄회장은 또한 정기 예금 계정에 있는 한인회관 건축기금 \$ 16,500.86도 신임회장에게 인계했다.

이날 인수인계된 재정 내역은 아래의 "수입 지출 명세"와 같으며, 추후 상세한 재무감사를 받도록 하였음.

수입 · 지출 명세

(1982년 1월 1일 - 1982년 12월 31일)

수입 지부		지출 지부	
1. 전년도(1981년)인수액	7.85	1. 사무실 임차료	2,589.10
2. 회비 수입금	10,446.00	2. 통 신 비 (우편)	549.94
3. 기부금 수입금	16,821.00	3. 전 화 료	720.97
가. 일반기부금	12,786.00	4. 사무용품비	769.95
나. 특별기부금	4,035.00	5. 인 쇄 비	1,100.00
		6. 회비발간비	6,605.50
		7. 각종 행사비	6,977.47
		8. 회 의 비	454.82
		9. 찬 조 금	1,200.00
		10. 기념·축하품비	408.77
		11. 집기·비품비	635.00
		12. 신문 구독료	21.00
		13. 불우 이웃돕기	1,491.30
		14. 은행수수료	77.66
		15. 잡비(인건비 포함)	3,176.09
		소 계	26,777.57
		차 감 잔 액	497.28
		(Rainier Bank)	
수입지부 총계	27,274.85	지출지부 총계	27,274.85

한인회 첫 이사회

한인회 1, 2, 3 차 임원회

한인회 뉴스

신임 회장단이 1983년 임기중 수행할 한인회 사업계획과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승인을위한 첫 이사회가 신호범회장의 요청으로 1월 17일 7시부터 2시간동안 다운타운 한인회사무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사는 신호범, 광종세, 오계희, 이동립, 엄도승, 엄명보, 손옥봉, 전영환씨 8명으로 문군성씨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한인회 총무 조성욱씨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1983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했다.

신호범 회장단에 의하여 조직된 1983년도 한인회 임원회가 12월 27일, 1월 3일과 1월 8일에 3회에 걸쳐 조성욱총무자택, Shoreline Community College 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

이와 같은 3차례 모임에서 회장단과 임원들은 각부서로부터의 제안을 토대로 83년도 한인회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모두 장시간을 요하는 마라톤회의 였으나 전원 참석하여 진지한 토의로 시종되었다. 1년 전체계획및 1월중 행사 사업계획은 1, 2차 회의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3차 회의에서는 일부 2월 행사계획이 토의되었다. 2월중 행사의 세부 계획은 제 4차회의 (1월 29일) 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983년도 한인회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무: 조성욱 재무: 혜식 스미스
- 섭외: 이현진 경노: 이춘영
- 부녀: 이성덕 교육: 백경숙
- 홍보: 허 권 체육: 이신남
- 청년: 이정언 봉사: 김영남
- 조직: 박봉수 문화예술: 이창규
- 편집: 박건홍



한인회 첫임원회 광경

이날 첫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사회조직: 이사장, 부이사장및 결석이사 보임.
- ② 집행부가 수립한 사업및 행사계획 (본회보 페이지 참조)및예산안 (총 6 만불 규모) 승인.
이사장: 이동립
부이사장: 손옥봉
총무이사: 엄도승 (잠정)
보임이사: 장부관

따라서 1983년도 한인회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이동립 (1982년도 총선에서 피선)
- 부이사장: 손옥봉 (1982년 잔임이사)
- 총무이사: 엄도승 (1982년 총선에서 피선)
- 이 사: 신호범 (현회장 자동이사)
- // : 광종세 (부회장 자동이사)
- // : 오계희 (" ")
- // : 엄명보 (1982년 회장 자동이사)
- // : 전영환 (1982년 잔임이사)
- // : 문군성 (1982년 총선에서 피선)
- // : 장부관 (보임이사)

③ 1983년도 한인회비를 회원 1인당 \$ 10로 책정 (따라서 회비는 종전과같이 가족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납부하도록 되었음)

- ④ 1983년도 한인회 재정감사로 씨를 임명.
- ⑤ 엄명보 전임회장이 시작한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주소록』 발간을 신임회장단의 책임하에 하도록 위임.

김간난여사 한인회 사무실 근무 자원



김간난 여사

고 이창희 선생의 미망인 김간난 여사는 “한인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저” 앞으로 새한인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낮동안 자진 봉사근무 하겠다고 자원했다.

이와 같은 김여사의 뜻은 1월 22일 한인회 주최 조찬 기도회장에서 김여사로 부터 신호범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호범 회장은 “눈물 겹도록 감사하다.” 고 하면서 “한인사회를 위하여 이처럼 헌신적인분을 만날때 마다 몸과마

음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굳어진다” 고 술회했다. 이소식을 들은 한인회 이사 임원들은 한결같이 환영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 이창희 선생은 시애틀 한인회의 창시자였으며 생존시 이지역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한 보기드문 공로자로서 널리 추앙을 받았다. 김간난 여사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이창희 선생 추모 장학회』를 관리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시애틀 한인장로교회에서 권사로 활약하고있다.



보혜사 한방원

保 惠 師 漢 方 院

●보약 ●녹용 ●우황청심환 ●첩약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762-8566 762-6493

치 질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 창 하
762-8566 762-6493

영업시간: 당분간 평일은 오후5시~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오후9시

8107-22nd Ave. S.W.
Seattle 98108

살신성인(殺身成仁) 하는 자세로
한인회에 적극 참여하자!

이러한 것 보다는 못다한 일들이 많은 1982년! 1982년은 우리 교민사회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점철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우리는 이민 생활이 있어서 특별히 인내와 자재, 사랑과 봉사, 겸손과 양보 및 쓰라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세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불신하고 오해하며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아 왔는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당에서 한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교민사회사 발전하고 대동 단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랑과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훈훈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일이며 이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새해에는 제발 우리들을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반복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한인사회에 자리 싸움으로 야기되는 극한 대립은 최대한 막아야 하고 미국 법정까지 가서 누워 침뱉기식으로 알가알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망신주는 일은 제발 삼가하길 빌며 올해에는 필연코 상식이 통하는 교민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자유와 민주, 그런데로 온갖 축복을 받고 있는 복지의 나라로 이민와 살면서 무엇인가 조금은 변화된 것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정신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음을 느낄때에 아쉬움과 허탈감이 앞서기만 하다. 거의 모두 나의 주장이 옳다는 식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못

손 옥 봉
이고 못마땅하다고 열을 올리는 소치는 무슨 저의일까? 대다수의 우리들은 초연한 자세로 온돈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가 하면 혹자는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한인회니 뭐니 하는 단체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단다. 이민생활에 안숙해진 어느 선배님의 말씀인즉 한인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몇명만 모였다하면 칭찬에 앞서 남을 헐뜯는 일과 비방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가끔적이면 그런 소용돌이 속에는 휘쓸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충고도 한다.

우리 이민사회에 있어서 한인회가 중심점이 되어 상호 협력 단결하여 단합된 한 힘으로 우리 민족의 슬기를 심어 나가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선배님들이 어찌하여 이런 자세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고 무관심하여야 하는가? 그 책임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하기에는 벽찬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몇몇 사람때문이라고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의 책임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무대를 몇몇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면 그의 대한 책임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져야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한다. 각 민족별로 이민사를 조사 연구한 어느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민 3세후에는 고유의 민족의식이 희박해지고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 소수 민족 가운데도

미국 사회의 단결된 힘과 집약된 권리로 서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광복한만 한민족의 발전을 도모한 실례로 유대인과 중국민족의 그것이 바로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언어와 풍습, 생활 양식, 생김새마저 다른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면서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백의민족의 슬기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2세, 3세에게 모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언어를 매체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세계 인류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지난날 수 없이 많은 민족이 명멸했다가 사라져 버린 것 처럼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자유의 땅, 미국에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서의 찬란한 역사를 이룩할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당면 과제를 뒷전에 하고 단지 근시안적으

로 복전에 사소한 자기 중심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게 되고 보다 큰 것을 잃어 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되풀이 하여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량도 배풀어야 하고 둘만 모이면 남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항상 혼자있어도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할 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거시적인 긴 안목으로 서광이 비칠 내일을 위하여 모두 한인회라는 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조언과 많은 성원을 보내는 가운데 각자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 서서 대의를 위하여 심사숙고할 때에 우리 교민사회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알찬 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 : 한인회 부이사장

스튜디오 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약혼식꽃
- 실내용 화초
- 각종 축하용 화분
- 장례식 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전화만 주시면 즉시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EUS 325 5032 RES :367 1534

이영주 치과

타코마 지역 581-1412
진료일시 : 화, 목, 토(아침9시~6시)
진료장소 :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98499

시애틀 지역 775-3456
진료일시 : 월, 금(아침9시~6시)
수(낮12시~저녁9시)
진료장소 : Stevens Dental Center
20728 - 76th Ave W.
Edmonds, 98020



관종세

어느 집에 가거나 그 집 겉모양을 볼 때마다 복잡 미묘하면서도 단순한 그 무엇인가를 육감으로 느낀다. 집이 크고, 호화롭고 실내 장식이 잘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 건물과 그 집 안의 가구나 조도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집 사람들의 인간성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집의 겉모양은 그 가족이 바깥 세상 즉 현실 사회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의 단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방안을 어떻게 꾸며 놓고 무엇을 늘어 놓고 사는가는 그 가족 전체의 "정신 세계의 표현"이라고 어느 정신과 의사는 말했다.

자기 탄은 잘 산다고 요란하게 차린 가구에서도 산만과 허영과 부조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자그마한 집이라도 검소한 가구를 통해 그 집 주인의 인간성의 중후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집 외양도 그렇다. 별로 신중하지도 않은 집 거죽에다 인조석을 잔뜩 붙여 놓은 집, 혹은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집의 주인은 세상을 대할 때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대인 관계에서는 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회의 중심에 서려는 사람일 것이다.

한인 교포들이 돈 좀 벌어서 집을 샀다면 그 동네에서 최근에 지은 2층 집을 자랑한다. 지출이 총 수입의 40 - 50% 까지 부담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 심

층엔 흑인이 캐디락을 좋아하는 심정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집 속을 들어가 보면 그 가족들의 성격이 더 잘 알 수 있다. 방 안에 다른 세간은 별로 없고 책이나 그림이 많은 집 주인은 다른 것보다 머리 쓰기를 좋아하는 "두뇌형"의 성격자일 것이고, 방 안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담은 그릇, 또는 술병을 눈에 띄게 늘어놓고, 집 내용 보다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장실을 잘 꾸민 집 주인은 정신적 에너지를 먹는 데나 또는 먹는 것을 배설하는데 많이 소모하며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늘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즐겨하는 타입의 성격자로 외장형, 또는 내장형 성격자라고 한다.

그 외에 생활의 에너지를 대부분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소비하는 타입의 성격형이 있다. 이들은 정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교제에 필요한 것 즉 운동이나 댄스나 남 앞에 입고 나갈 옷을 잔뜩 산다든지 또는 육체적인 접촉을 할 때 필요한 울긋불긋한 비단이불을 많이 장만하여 남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쌓아두고 좋아하고 들여다본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은 "신체형" 또는 "근육형" 성격자라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성격을 분류하는 방법은 수 없이 많지만 셸던이란 학자는 성격을 두뇌형, 외장형, 근육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세가지 타입의 성격은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지

적한 특징 외에도 일상생활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다른 법이다.

만약 어떤 곤경에 빠졌을 때 외장형의 성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어려움을 타개해 줄 어떤 타인을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근육형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여 곤경을 이기려고 할 것이고, 두뇌형은 곤경에서 도피하여 버린다.

사교면을 보면 "외장형"은 남을 대할 때 마치 만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처럼 애교가 있고 사교적일 것이고, "근육형"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도 자기의 고집을 꺾기 싫어서 걸핏하면 싸움을 할려고 할 것이고, "두뇌형"은 대인 공포증이 강해서 남과 방 안에서 책이나 보고 누워 있는데에 안도감을 가질 것이다.

술을 마실 경우도 외장형의 성격자는 이야기가 많아지며 유쾌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남의 술에도 제 생색내기가 바쁠 것이다. 또 근육형은 술 작성에서 술만 마시면 기생이나 옆자리의 여자들을 독차지 할려고 할 것이고, 댄스를 하자고 조르고 또는 난폭한 주장이나 주사도 불사하겠지만 두뇌형은 술은 잘 안마시고, 술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고서 남들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꼴만 보고만 있다가 싸움판이라도 벌어지면 어느샌가 사라져 버린다.

남여간에 연애를 하는 경우도 두뇌형의 성격자는 프라호닉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념적인 정사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근육형의 성격자는 사귀자마자 육체적인 접촉을 강요하며 키스나 댄스 또는 그 이상의 급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외장형 성격자라면 자기의 부모나 친지들이 "마담뚜"가 소개해 주는 정도의 상대방을 우선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며, 또 연

애를 함으로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큰 소득이 생겼으면 하고 따뜻하고 푸짐한 연조를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 또 실제로 연애를 하더라도 우선 무엇인가 맛있는 것부터 먹으려고 한다.

한 민족의 성격이라는 것도 그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자가 많이 모였는가에 따라 민족성이 특징지어진다. 즉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외장형, 근육형, 두뇌형의 세가지 중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민족성이 결정지어 지는데 아직 그런 조사가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알수가 없다.

7,80만을 헤아린다는 미주교포 사회에서도 "사회적 거울"이라는 신문 사회면을 보면 "30대 교포 남자가 전 처를 여섯 토막내" 라는 라스베가스 의 소름끼치는 이야기라든지 "U.A. 교포 청소년 강도단 오래근주로 원정"하는 T.V.극속의 장면같은 기사, "U.A. 한인회의 감투싸움" 또 가깝게는 이 지역 교포사회도 별수 없는지 타코마 한인회 선거에선 난투극이 벌어지고, 시애틀에서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한인회의 얼굴이라는 "한인회보"에 실린 글에도 할퀴듯 거칠고 자극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교포사회는 분명 근육형의 성격자들이 한국판 서부 개척시대를 만드나 보다.

그런가 하면 한국 신문 (미주판 아님)을 보면 30대의 젊은 여인이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세번째 남편을 업고 1년 동안 7천 1백 11억이란 사기 어음 놀이를 했던 "큰손가진" 여인 사건을 화려하게 몇달째 율거먹었고, 60억불 대일 차관에서 40억불로 낙찰됐다는지, 34만불사건, M16총 강도미수등 한항주의 기

사 내용이라든지 가뭄과 장마 피해로 "천재냐 인재냐" 하면서 "물 한방울이 쌀 한斛" 하는 기사라든지, 생선이 잡히니, 김장이 어땠고 하는 따위, 누구에게 또는 어느 나라에 구원을 바라는 기사가 많은 것을 보면 한국사회가 위장형적인지 그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이 위장형 성격자가 많던지 그럴것이다.

집을 몇번 이사하다 보면 느끼는 일이 겠지만 한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미국사람 집이던 한국사람 집이던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가정이던 어쩌면 그렇게도 집안에 책 한권없이 용케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해 한다.

여기 이민 온 교포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책이라고는 오락잡지나 전화 번호부 정도다.

10여년전 한국에서 어느 장관댁에 방문한적이 있었다. 으리으리한 철책 때문에 인력폰이 있어 이름 석자와 미리 약속있었음을 밝히고 들어가니 잘 가꾸어진 정원과 정원수, 깨끗한 수영장과 잘 꾸민 잔디, 그 사이로 난 디딤돌을 딛고 현관에 들어서니 동창되는 비서가 집 구경을 시킨다. 미국에 10여년 살아 왔지만 아직껏 구경 못해본 그런 호화판 실내 장식과 집 기물을 보고 나서 응접실에 앉았을 때에는 또 한번 놀랬다.

벽에 진열된 자개 책장에는 금박장서들이 즐비한데, 어쩔 그렇게도 대부분 무협소설류로 들어 왔는데 학생방에나 있을 세계명작집이 차지한 자리는 그래도 그 집에는 어울렸다.

정치한다는 정치인의 서재에 있던 유일한 정치 서적은 "박 대통령의 어록집"과 유신정책에 관한 책으로 기억된다. 외국 소담에 "취미는 무엇입니까?"하니 "독서"라고 서슴치 않고 대답하는지라 "무슨 종류의 책을 읽으십니까?" 하고

재우쳐 물으니 "은행 예금책과 전화 번호책"이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리들중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정치니 철학이니 예술이니 그렇게 아는 척 하지만 그 성격형은 두뇌형은 지극히 적고 위장형이나 근육형 성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탓인지, 아니면 민족을 이끌어 가며 문화 창조와 국가 발전에 기여 할 두뇌형 성격자는 출세를 못하고 위장형 성격자들과 근육형 성격자가 결탁하여 민족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지 나는 잘 모른다.

두뇌형이 적은 사회는 민주주의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량주의나 찰라주의가 설치되는 위장형 사회나, 근화로 갈아 뭉개는 혁명이나, 방화를 하든 투석을 하든 와와 떠들면서 데모나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근육형 성격자들이 많은 곳에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으며 키워 가꿀 수가 있겠는가?

지난해는 불경기의 짜증이 교포사회에도 퍼져 몇 사람의 목은 개인 감정이 대화를 단절한 채 엉뚱한 열기를 품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면, 부채질 하는 사람이야 신들이 나겠지만 지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냉동실에 들어간 기분으로 한인사회를 주시하고 있다. 정말 바람직한 한인사회는 멀고도 험한 이정표일까?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손자가 어떻게 했다는 방정식은 지난해로 다 쓸어버리자. 한대의 살은 깎기 식역도 열대의 화살은 깎을 수 없음 같이 우리 역성현주에 사는 교포들이 뿔뿔뿔 미국 사회의 소수 라민족이나 백인 정치인들에게 한인 교포들의 경제적인 급성장과 정치적인 파워 (시민권자로 선거권을 가진 자)를 알릴 때가 온것 같다.

필자: 한인회 부회장

『원고 모집』



한인회보는 교민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이민생활에서 얻은 색다른 성공담, 실패담, 미담, 인정과 해학이 깃든 에피소드들. 그리고 우리의 습성, 문화, 가치관의 갈등속에서 터득한 새로운 삶의 예지를 담은 글들:

- 시
- 시조
- 풍트
- 수필
- 수상
- 희곡
- 단편소설
- 여행기
- 탐방기
- 풍물묘사
- 논문
- 비평
- 생활정보

이 외에도 한인사회에 대한 제언 또는 특별한 문제나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잘 엮어서 정리한 독자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고 편집부의 재량에 따라 삭감, 편집될수 있으며 게재여부도 결정될수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불됩니다.

(한인회보 편집부)

『시』 모래알의 몽상

- 파 영 -

손에 쥐어진
한 줌
모래알 처럼

움키고
놀리고
죄어도

부비고
깎이고
떠밀며

손가락 새로
흘러 내리는
힘 없는 알 알 알

긴 시간 속에서도
영키지 못하는
서글픈 사토의 숙명이라고
말이 전한다

찰랑대는 물에 젖고
살포한 미풍에 흩날리고
포근한 햇살에 파묻혀
꿈꾸는 냇 냇 냇

너희 모두 태산 처럼 커도
밀려오는 노도 앞에
난폭한 파사의 떠밀림을
모르고 있는가?



.. 어느 아침 『모래알의 숙명』

을 읽고..

한인학교 개교 광고***

교포 자녀들의 모국어의 습득 및 모국문화 전통의 이해를 통한 원만한 성장 발전을 위하여 오는 3월 1일 부터 한인학교를 열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께서는 첨부된 입학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한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습득과 병행하여 한국의 고전무용, 음악 및 태권도 등 어린이들과 젊은 이들이 정서 발전에 도움을주고 특히 다른문화,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와 연속성을 이해할수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합창단, 무용단등도 한 프로그램이 될것입니다.) 개교예정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LAKE CITY ELEMENTARY SCHOOL
 시간: 매주 토요일 2시간
 별지의 입학원서를 오려서 한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SEATTLE 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reet Street N. E.
 SEATTLE, WA 98125



한인회 현판식 성료***

1월 27일 오후 2시 부터 이전한 한인회 새사무실 (레이크 시티 스쿨 102호실) 에 서 거행된 현판식 및 다과회에 이문수 주시애 를 총영사, 손옥봉 부이사장, 김간난여사 등 내외 귀빈과 교민하객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인회 사무실 이전을 축하했다, 여러 하객들의 정성어린 화분, 액자등으로 한층더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다과를 나누며 2시간 여동안 새로운 한인회의 새신된 분위기를 느끼면서 보다 충실할 앞날의 발전을 염원하 는 환담을 나누었다.



현판하는 신호범회장, 이문수총영사, 손옥봉부이사장 (왼쪽으로부터)

**** 특별기고****

회의 진행법에 관하여 (회의 진행법)

『 긴급동의 』 (1)

한 만 섭

경기 규칙을 잘 모르는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한다면 심판이 경기 운영을 하는데 매우 힘들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심판마저 규칙을 반쯤만 알고 경기를 운영한다면 그 경기는 엉망이 된다. 회의 진행도 꼭 마찬가지다. 회의 진행법을 잘 모르거나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사회자나 회원 모두가 힘들고 재미 없다. 그러면 여기에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회의 진행법에 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회의 진행법은 "로버트 회의 순서 규칙" (Robert's Rules of Order) 이다. 1876년에 헨리 로버트가 초판을 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판이 나왔고, 최신 개정판은 684 페이지나 되는 거창한 책자로 모든 회의 진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한인회도 이 로버트의 규칙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에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회의의 목적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는데 있다. 안건을 결의하려면 찬성과 반대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 찬반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토의하여 결의하는가 하는 순서와 방법을 로버트의 회의법은 규정짓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한 회원이 결의될 안건을 성문확하여 우선 동의한다. 이 동의에 대하여 제창이 있으면 비로소 주동의 (main motion) 가 성립된다. 사회자는 주동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각 회원에게 주어 토의 (debate) 를 하게끔 한다. 그런데 이 주동의 토의 중 그에 관해서 종속 동의 (subsidiary motions) 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권 동의 (privileged motions) 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의의 우선 순위 (precedence of motions) 는 다음과 같다.

1. * 폐회 시간을 정하는 동의 (Fix the time to which to adjourn)
2. * 폐회 동의 (Adjourn)
3. * 휴회 동의 (Recess)
4. * 특별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의 (Raise a question of privilege)

5. 의사 일정대로를 요구하는 동의 (Call for orders of the day)
6. 토의를 임시 제쳐 놓기를 요구하는 동의 (Lay on the table)
7. 표결을 요구하는 동의 (Previous questions) (2/3)
8. 토의 종결 혹은 제한을 요구하는 동의 (Limit or Extend limits of debate) (2/3)
9. * 정한 시간까지 연기하는 동의 (Post-pone to a certain time)
10. 위임 동의 (Commit or refer)
11. * 개회 (Amend)
12. 무기 연기를 요구하는 동의 (Post-pone indefinitely)
13. * 주동의 (Main motion)

동의의 우선순위는 1번이 제일 상위이고 13번(주동의)이 제일 하위이다. * 표가 붙은 동의는 개회할 수 있는 동의이고 그 외의 동의는 개회할 수 없다. (2/3) 표식이 있는 것은 투표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동의가 가결되는 것이고 그 외의 동의는 과반수로 가결된다. 그런데 토의가 필요한 동의와 필요하지 않은 동의가 있다. 제 1번서 8번까지는 토의가 필요 없고 가결만 물으면 된다. 제 9번서 13번까지는 토의를 할 수 있다. 사회자는 이들 동의가 나왔을 때에는 회원에게 반드시 토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1번서 5번까지를 특권적인 동의 (privileged motions) 라 하고 6번서부터 12번까지는 종속적 동의 (subsidiary motions) 라 한다.

다음 호에 이들 여러가지 동의에 대해서 각 조별로 설명하기로 하고 또 "긴급동의"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필자: Boeing Engineer
 Aerodynamicist

영 의 상 실

* 한복맞춤 * 양장맞춤
 * 한국 실크 부라우스
 * 한국이불 일체
 * 남녀 의복 수리전문

(206) 763-9372

9829 15th Ave. S.W.
 Seattle, WA 98146

중앙
식품

762-5620

9641 15TH AVE S.W.
 아침 9:00 ~ 저녁 9:00

한인의 밤은 필요하다

과 상 영

한동안 소란했던 선거 소송 관계가 잘 마무리 지어졌더니 교민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하마터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댜놈이 거두어가는 격이 될 뻔 했기 때문이다.

오늘 신문을 보고 잠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전년도 회장단이 불우 이웃돕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모든 교민의 잔치인 "아리랑의 밤"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이였다. 물론 이유가 있어 그랬겠지만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부모 형제 또는 처자식을 고국에 두고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어려운 일들에 잘 적응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포가 서로 자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만에 만날 때 우리 고유의 우아한 한복이랑 장롱 속에 간직해 두었던 양복이며 넥타이로 단장하고 그간 변해 보이던 내 모습을 옛 모습으로 바꾸어 친구들을 대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흥겨운 옛노래 가락에 잠시 이국을 잊고 동실동실 춤을 출 수 있는 이 정겨운 광경들은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만 보아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그토록 그리운 고향 생각에 허한 마음들이 모두 모여 잠시 고국을 다녀오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때 1년 동안의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름답고 조국애 넘치는 만남이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해 취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여운이 있다. 불우 이웃 돕기는 어딜 가나 필요한 것이고 동포애의 발로로 충분히 이해가 가나, 교포들의 실상 파악 등 어려운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불우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불우 이웃 돕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담보 상태에 있는 회관 건립 기금에 넘겨 준다든가 아니면 비록 해는 넘겼지만 신년도 회장단과 뜻을 합쳐 교포 모두에게 지난 해의 어려웠던 일들을 씻어버리고 굳게 단결된 상태를 구정을 기해서라든지 부담이 덜 가도록 하여 많은 교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모든 교포가 두 손을 높게 들고 더욱 힘찬 박수가 울렸을 것이다.

최소가 옳았다는 결정을 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은 교포들의 소리를 참작했다면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전년도 회장단의 숨은 봉사에 깊이 감사한다. 신년도 회장단은 보다 더 양쪽 귀를 기울이고 교민의 아픔을 찾아 내어 위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전년도 회장단의 다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협조로써 교포 모두에게 과거보다 발전된 한인 사학하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

●한인회 사무실 상근 직원 채용●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는 아래와 같이 한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할 상근 직원을 채용 하고저 하오니 지시된 요령에 따라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위 : 한인회 사무실 리셀서 니스트
 대 우 : 능력에 따라 대우함
 자 격 : ① 25세 미만의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② 영어 및 한글 타자에 능숙하고 영어, 한국어 대화에 유창한자.
 ③ 예의와 품행이 단정한자.
-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통
 ② 사진 1매
 ③ 3사람으로 부터 간단한 추천서 각 1매

제출장소 : 1983년 2월 10까지 한인회 사무실로 도착할수 있도록 우송할것.

1983년 1월 20일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총무 조성욱

K.P. 번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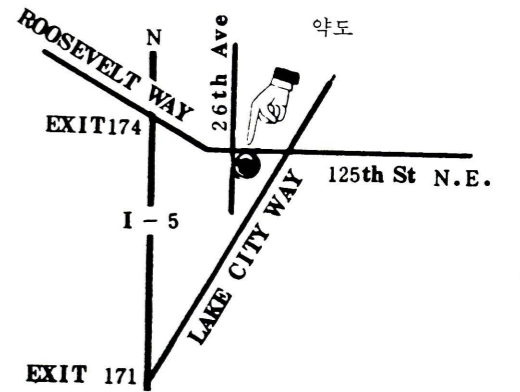
<연방법원·이민국 인가>

- 서류·책자 고급번역/작성
- 법정·이민국·각기관통역
- 사건 조사·처리
- 유능한 전문변호사 선정
- 이민·법률문제 해결보조
- 각종 상담

K.P. Translation Services
1600 N.E. 47th St. #18 대표 : 박 건 흥
Seattle, WA 98105 (206) 527-8094

다음장소로 한인회 사무실을 옮겼음을 교민 제위께 알려드리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2611 - 125 th St . N . E .
Seattle, WA 98125
전화 : (206) 362 - 4500



업무시간 : 월~금오전 10시부터오후 5시 까지
(점심시간 12:00 noon ~ 1:00 p.m.)
※ 넓은 주차장이 있으므로 주차에 불편없음

청타오식당

TSING TAO

- ◎순한국식 중화요리전문
- ◎수타국수, 칵테일완비

영업시간

- 화-목 : 12:00 - 10:00PM
- 금-토 : 12:00 - 11:00PM
- 일 : 1:00PM - 10:00PM
- 월 : 휴일

전화 367-9337

13744 AURORA AVE N.
SEATTLE, WA

『한인사회 동정』

●워싱턴주 한국 간호 협회 발족●

워싱턴 주 내에 300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 간호원 출신자 또는 현직 간호원들을 위한 "워싱턴주 한인 간호 협회"가 발족되었다.

현재 워싱턴 대학(U. W.) 간호 대학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장 봉선씨, 정신 지진아 학교에 간호 책임자로 있는 노계순씨 등 10 여명의 전·현직 간호 직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이 간호 협회는 작년 12월 4일 제 1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장 봉선씨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총무 노계순씨에 의하면 "워싱턴주 간호 협회"는 1) 현지 간호원들의 교육 2) 새로 오는 한국 간호원들의 시험준비 3) 한인 간호원의 취직 문제, 법률 문제 해결 4) 한인들의 건강 상담 그리고 5) 병원 입원 환자 언어 장애 보조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협회는 매월 월례회를 가지고 현황을 파악, 회원을 증 가시키면서 활동 방안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 한다.

동 협회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으로 1) 미국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 2) 현재 간호 학교 학생 3) 한국에서 간호원 하시던 분들을 회원 자격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교민들의 많은 가입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주 한국 간호 협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2742 116th Lane N.E., J37
Kirkland, WA 98033 또는
P.O. Box 5657
Seattle, WA 98105
전화: (206) 821-9576

●기능사 협회 재구성 발족 움직임●

문군성씨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기능사 협회를 재구성 발족시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있는 기능계 인사들은 곧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기능사 협회의 방향과 구성을 구체화 하여 확정 시킬것으로 보인다.

●경노회 동향●

최근 김동조회장의 돌연한 사퇴이후 지도체에 공백상태를 맞고있는 시애틀 경노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광고비 안내

(Advertising Rate)

본한인회보에 게재되는 광고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면표지 1/2면 (1/2 Page)	\$ 120
앞뒤표지 안쪽 전면	\$ 180
앞뒤표지 안쪽 1/2면	\$ 90
내부 전면	\$ 120
내부 1/2면	\$ 60
내부 1/4면	\$ 40

※ 분류광고(업종, 단체별 또는구인 구직)

(Classified)

1단(약 1"×2") \$ 10

(표지나 내부에 광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달에 한해서는 분류광고는 무료로 하여 드립니다.)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富林印刷

(206) 433-8811

『한인사회소식』

●“사진작가 동우회”발족●

사진 예술에 특수한 기술이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들의 모임인 "사진작가 동우회"가 이 현진, 이 규영, 강병철씨등 회원11명을 주축으로 시애틀에서 1월 2일 발족되었다.

새로 발족된 "사진작가 동우회"의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 현진씨는 "현재 전 미국을 통하여 한인 교포사회에 사진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단체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한인들의 사진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애틀에 최초로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모체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동 동우회의 설립 목적 및 장래 포부를 밝혔다.

이 "사진작가 동우회"는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갖고 기술 향상 및 학술 토의를 통하여 새 아이디어를 찾고 매월 회원들에게 주제를 부여하여 작품활동을 진작시켜 나갈것이라고 한다. 또한 금년내로 시애틀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차 타주로 확대해 나갈것이라 한다.

"사진작가 동우회"는 사진에 취미가 있거나 사진 예술을 공부하고 싶은 애호가들의 입회를 환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의나 연락은 이 현진 회장 (542-6053)에게 하면 된다고 한다.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애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동창회 소식

● 연대동문회 소식

작년 12월 3일 노명재 의사택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이창준(산부인과의사)씨를 1983년도 동문회장으로 선출하고 시애틀 지역 간사에 오경아(522-2494) 페더럴웨이 지역 간사에 노명재(952-5692) 타코마 지역 간사에 함화용(972-5220) 박남표(565-1596) 올림피아 지역 간사에 정승균(352-1431)씨를 각각 선임하였다.

● 성대 동창회

12월 12일 구범희씨 택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에서는 이의곤(제일식품)씨를 1983년도 회장으로 선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이의곤
부회장:성동민
// :이익우
총무:유창명
동창회에 관한 문의는 이의곤 회자에게 (774-4103)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학교 동창회

작년 12월 18일 김길랑씨 자택에서 열린 한양대학교 동창회 정기총회에서는 김길랑(Pro-Litho 인쇄소 대표)씨를 1983년도 동창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양대학교 동창회는 작년 6월 19일에 총회원 44명으로 시애틀에서 결성되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김길랑 부회장:박헌주·박학준
총무:허권 섭외:김기동
회계:박재성 서기:김영국

● 경희대학교 동창회

작년 12월 19일에 개최된 경희대학교 동창회는 1983년도 회장으로 김현길(연방정부 상무성근무)박사를 선출하고 새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동경기 총회에서는 또한 경희대학교 동창회의 금년도 목표를 친숙·자활의 길 확보, 교포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할것으로 정했다고 한다.

새로 임명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김현길 부회장:김정부
총무:백웅기 재무:박범신
섭외:송재석 체육:김종현

● 고려대학교 교우회

작년 12월 20일 시애틀 시내 차이나 케이트에서 개최된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는 초대 회장인었던 황수철(SEA FIRST BANK 부사장)씨를 1983년도 회장으로 또한 전회장이었던 조은한씨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재무에 김종구씨 간사에는 조강래씨를 각각 임명 하여 동교우회의 신년도 조직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 중앙대학교 동문회

작년 12월 25일 윤한복 동문자택에서 열린 중앙대학교 동문회 정기총회에서는 이현진(PAN GLOBAL INDUSTRIES CO. 사장) 동문을 1983년도 동문회장으로 선출 했으며 다음과 같이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중앙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중앙대학교 및 서러벌 예술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락을 바라고 있다.

고문:김명성
회장:이현진(542-6053)
부회장:송춘무(362-5021)
총무:강세철(952-2197)
재무:이규영(365-8640)
섭외:장태근
봉사:강병철
사업:윤한복

헨리장여행사
 (206)523-7057
 (206)524-7734
 ■ 국제국내 항공권 취급
 ■ 재정 보증서 작성
 ■ 이민상담
 ■ 항공 화물 취급

회

입니다

내주시는 정성스
리고 있습니다.
를 확보할수 있
나마나 회비를 잘
다. 이것은 교민
대한 관심과 참

여의 척도 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한인회는 여러가지 뜻있는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교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간절히 요청되는 일들로서 여러분들의 협조없이 불가능 합니다.

금년도 한인회비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원 1인당 10불로 책정되었습니다. 한인회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회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불 이상을 개인 이름으로 내어 주시는 분은 회비를 납부한것으로 간주하고 기부자 명단에 수록하겠습니다. 회비는 본회 보 뒷표지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 또는 우편함으로 우송하시거나 한인회 임원, 직원에게 직접 납부 하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공 고

외무부는 현재까지 여권용 사진으로 천연색 과 흑백사진을 구별없이 공히 사용토록 하였으나 83.1.1부터는 여권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사진식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여권 부착용 사진을 천연색으로만 (2x2) 사용토록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년부터는 여권용 흑백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씨애틀 총영사관 제공)

리스 서비스 센터

- 각종 가정용 및 사업용 냉동기, 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전기용품 일절수리.
- 용접(전기, 산소)
- Wood Stove 제작 및 수리
- Maintenance Contract 24시간 서비스

Mark W. Lee
이 용 호

771-5728

4104-219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가나안 여행사

친절과 신용본위

- 국제 및 국내 항공권 판매
- 각종 여행 수속
- 항공권 월부 판매
- 이민 수속 및 가족 초청 서류
- 교포 여권 갱신 업무
- 각종 서류 번역
- 각종 공증 업무
- 항공권 배달

409 Maynard Ave. So., Suite 107
Seattle, WA 98104

(한일각양)

(206) 624-6461

편집자 주: 비즈니스 또는 국제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집부는 다음 호부터 시애틀 포틀랜드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국내 회사들의 지사, 상사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 예정이다. 이번 호에는 우선 지사상사와 다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애틀 무역관(Korea Trade Center, Seattle) 을 소개한다.

시애틀 무역관은 상공부 산하 국영기업체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KOTRA) 의 전 세계 86개 무역관 중 하나로 워싱턴 주, 오레곤 주, 몬타나 주, 아이다호 주 및 알래스카 주 5개주를 관할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북미주 조직망은 미국 내만 11개가 주재하고 있는데 외부 공관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와의 우호 증진, 무역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각종 유명 박람회 참가, 통상 사절단 및 세일즈맨단의 현지지원 등 우리나라와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비영리 국가 서비스 기관이다.

지난 1973년 12월 1일 개설한 시애틀 무역관은 그간 4대에 걸친 무역관장들이 기반을 닦아 왔고 현재는 5대 관장인 박인규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현재 시애틀 무역관은 1982년 4월 1일부로 부임한 박인규 관장 외에 1982년 12월 10일부로 부임한 부관장이 강업씨와 그 외 2명의 현지직원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The Bank of California Center 빌딩 12층에 소재하고 있다.

타 무역관과 마찬가지로 시애틀 무역관은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을 위해 현지 시장에 관한 지역 및 상품 정보, 거래 앞선, 바이어 유치, 우리나라 세일즈맨

단의 지원 이외에 세미나 개최나 현지 일간지 홍보를 통해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왔다. 특히 시애틀 무역관은 현지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출신장에 기여하여 왔으며 우리 상품을 가지고 직접 바이어와 접촉하여 거래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시애틀 무역관 관할지역인 워싱턴 주를 포함한 5개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82년 10월말 현재 \$359.1백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의 증가를 실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 미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것에 비하여 월등히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는 시애틀 무역관의 숨은 노력이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애틀 무역관은 현재 우리나라와 수출입을 하고 있는 교포 무역인들에게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바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에 있어 문제점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교포 무역인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시애틀 무역관(Korea Trade Center, Seattle)

Add: Suite 1245, The Bank of California Center, Seattle, WA 98164

Tel: (206) 623-3558/9

American education

Schools not what Korean parents expected



By YOU-KYONG KIM

The American experience is ironic for most Korean immigrants: the parents say they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brighten their children's future, but complain that American education is spoiling them.

Korea is one of the oldest, most homogeneous and most conservative countries in the East. Immigrants want Americans to know that the Korean language is not the same as Chinese or Japanese, that Korea has a totally different written language,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not part of China or Japan, that Korean culture produced the first movable metal type in the 13th century and an iron rain gauge in the mid-15th Century, about 200 years earlier than the west.

The force generated by Korean culture and national pride is very strong — and creates unique problems for the Korean immigrant to the United States. Korean students need to learn to respect cultures other than their own.

The only direct contact most Koreans have ever had with the West is through America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America is viewed as a friendly, open country filled with opportunity and freedom. Only after the immigrants arrive do they realize that two jobs or many hours of overtime are needed to succeed in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s encountered by the Korean immigrants are most sharply underscored by the students.

The Korean immigrant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finds the social freedom he always dreamed of in Korea: Girls are free to wear colorful clothes and makeup while boys soon learn to smoke or drink and to ask girls out on dates.

But most students cannot handle the new-found freedom and find they are still bound, at least in part, by the old rules.

Again, the irony is that many of the problems are caused by the clash of old values with the freedom expressed in the American way of life.

Immigrant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ge usually have not been fully socialized in Korean values and become quickly 'Americanized.' The students eventually experience some communication problems with their Korean-speaking parents and most have an identity crisis in adolescence.

Young teen immigrants of middle school age are caught between conflicting value systems and their confusion is shown in a lack of self-confidence.

High school-age teens are generally well versed in Korean values and, as immigrants, they often make a calculated decision to adopt American ways because they believe it is to their advantage.

It is difficult to know if an immigrant ever truly adjusts to a new culture. While a person may speak English and Korean fluently and may practice both American and Korean values, he may not fully participate in either culture.

Most Korean immigrant students complain that they are lonely and say that they have no "true" friends. They say it is hard to make friends here, whether American or Korean.

The reason may be the difference in American and Korean educational systems. The kind of intense friendships formed in Korean classrooms cannot be made in America because students spend about 2,000 hours together each year in Korea compared to about 200 hours in America.

The language barrier, cultural differences and a lack of common interests also make it difficult for Korean immigrant students to make friends. Most Koreans do not even make "simple friends" in American schools and complain that local kids do not want to be friends with them.

However, the student has been educated to be passive in Korea and friendships are not likely to develop unless the American student takes the first step.

Korean immigrant students are uncomfortable with the egalitarian atmosphere of the American schools, especially with the casualness of student-teacher relations.

In Korea, the best liked teacher is a father figure or an elder brother-like teacher who is authoritative but understanding. A close relationship can develop between student and teacher in Korea without becoming "buddies."

Korean immigrant students are therefore bewildered by American teachers who wear shorts to class — attire appropriate for the beach or at home in Korea — and cannot understand teacher strikes and are confused by male teachers who have long hair.

They think it is terrible when students hug and kiss at school and lose trust in American teachers who tolerate such activity.

The parents of immigrant children must become more involved in school activities.

It is very unlikely that a Korean parent will volunteer to attend a PTA meeting. While the language may be a problem for some, what keeps most parents away is simply that they are not accustomed to attending such meeting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immigrant parents, it is best to first enlist the support of an enthusiastic Korean parent and then have that parent seek the support of others. Once a group of Korean parents is organized, more parents will join and the group will become very supportive.

Many American school counselors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Korean immigrant students insist on taking hard academic courses when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re limited.

The answer is simple: the students do not want their intellectual ability to be discounted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Korean students want to take difficult courses to prepare for college studies.

Hard-working Korean immigrant students may be obsessed with the "getting into a top college" syndrome and will resist advice to go to a two-year community college to sharpen their language skills and then transferring to a four-year university.

Munro Calls For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and Korean Community

The Korean community group's next courtesy call was to the Secretary of State Ralph Munro. Warmly received by Munro, they also briefed him on the affairs of the Korean community. In a dialogue that followed the briefing, Munro and the Koreans exchanged ideas on the topics ranging from international trade to economic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ies in the state of Washington. Munro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develop a firm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and urged the visitors not to hesitate to let him know on any matters that need coopera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state government.

Munro invited the visitors to a luncheon where they continued their dialogue on matters related to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community, with emphasis on what the state government can do for the community. The luncheon meeting marks the beginning of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state government.

Korean Businessmen Urged to Take Part in Upcoming World Trade Fair in Spokane

The Washington State's Secretary for Commer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Richard T. Schrock, indicated during the Koreans' visit to Governor Spellman that plans are underway for a World Trade Fair to be held in Spokane around March or April of this year. Spellman pointed out that Washington State's trade with the Orient, especially its trade with Korea,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state's economy in view of the geography and the nature of economic activities of Washington State. The governor expressed his interest in increased trade with Korea and looks forward to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Koreans residing in the state. Mr. Schrock also called for active participation from Korean residents and Korean companies in the upcoming World Trade Fair in Spokane.

Korean Night Festival To Be Held on April 23

The Seattle Korean Association is planning a variety of programs for KOREAN NIGHT FESTIVAL on April 23. Leaders from various sectors of the American community will be invited to participate and appreciate Korean arts and culture. It will be a community-wide celebration of Korea Day with a touch of Arirang Night mood that the community missed last year.

Following the Koreans' new year's courtesy call to Olympia, Governor Spellman officially notified Consul General Moon Soo Lee of his intent to proclaim April 23 as Korea Day in his letter of January 12. The state of Washington had its first state-wide Korea Day in 1975 when the former governor Dan Evans was in office. Spellman had accepted Paull Shin's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Korean Night activities at the time of the new year's courtesy call.

Paull Shin Projects a New Era for the Korean Community

As newly elected president of the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Dr. Shin emphasizes the need to open communication channels with various levels of US government, and introduce to the American society the true nature of the Korean community – its potentials, problems, and needs. Here is why he believes hope lies ahead of the Korean community:

"We have embarked on a new era for the Kore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We are no longer a small minority group unnoticed by the American counterpart. We are about thirty-five thousand strong with dynamic professional, socio-economic and political strength. There are at least 8,000 Korean-Americans who hold American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vote in all elections. We need to be organized and recognized as an influential lobbyist group. In one generation, we have achieved the equivalent socio-professional status in American society that took both Chinese and Japanese communities three generations. Our need is to be organized as Korean-Americans and become involved in public and civic affairs. We have sufficient talent and unique qualities to offer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American society that in turn can enhance our status as well as future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

"The visit to Olympia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discover numerous ways to help our community both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This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educate the state leaders concerning our strength and resources as well as a chance for us to learn what opportunities and public programs can benefit u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communities to know that Korea is the third largest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 in Washington State and also to know that Korean-Washington lumber trade is making a substantial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Washington education system. Through an open line of communication, there are also ample ways that state officials can help our community and people in furthering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New Officers Elected for 1983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had a record-breaking turnout at the November 20 election last year. Over a thousand members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and voted the following members into office to represent their community in 1983.

President	:	Dr. Paull H. Shin
Vice President	:	Mr. John C. Kwak
Vice President	:	Dr. Ke Hi Oh
Board Member	:	Dr. Dong Rip Lee
Board Member	:	Dr. Do Sung Uhm
Board Member	:	Mr. Kun Sung Moon

Korean Community Representatives Exchange Ideas with Governor Spellman and Secretary of State Munro at Olympia



On January 5, 1983, a team of new officers led by the newly elected president Paull Shin made a new year's courtesy call to Mr. John Spellman, the governor the State of Washington and Mr. Ralph Munro, the secretary of state of Olympia. Also present was Consul General Moon Soo Lee represent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pellman to Announce April 23 "KOREA DAY"

Personally greeted by Governor Spellman himself at 10 A.M. January 5, the Korean representatives extended a new year's greeting to the head of Washington State government in behalf of all the Koreans residing in the state. The conversation ranged from greetings to briefing the governor on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community – its history, population distribution, occupation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the philosophies and objectives of the Korean Association.

Paull Shin indicated to Spellman that the Kore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is a rapidly growing minority group with more than 30,000 members, an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hold U.S. citizenship. The Korean community has now reached a point where it can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and other political activities of the state with an influential voice.

Impressed by the progress the Korean community has made, Governor Spellman said that he would look forward to Koreans' contribution to the State through their remarkable progress. Reminiscing his feelings and experiences from his visit to Korea in 1981, the governor expressed his profound interest in the Pacific Rim countries. For a brief moment, a note of sorrow touched the governor as he remembered his brother who was killed in action in Korea during the war.

Wishing the very best to Korean people, Governor Spellman agreed to proclaim April 23, 1983 as **Korea Day** throughout the state.

The visit lasted for 45 minutes.

편집을 마치고***

- ◎ 빈손으로 편집책임을 맡고 새회보를 만들어 내기란 힘겨운 일이 었다. 더우기 달을 넘기지 말고 신년호를 발간 해야 된다는 압박속에 한달이 어떻게 갔는지 멍멍할 뿐이다. 잘못된데가 있더라도 독자 들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길 빌뿐이다.
- ◎ 좀더 알찬 회보를 만들기위하여 널리 글을 모아 보려했다. 원고를 급하게 부탁하고 급하게 마감한 까닭에 이번호에 실리지 못한 글들은 다음 호로 넘긴다.

- ◎ 광범위하게 편집진을 짜보려했다. 쫓기는 시간에도 보다 품위있는 회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선에서 필 배동한씨와 편집위원으로 함께 일해 주시기로한 유대식, 이익환, 변재환, 김동호, 곽상영 형들 그리고 백현옥양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 ◎ 한인회보가 이제 우리 2세에게도 읽히고 미국사회에도 우리를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이번호 부터 영문 페이지를 두기로했다. U. W. 에서 영어학 강의와 영문학 박사 논문탈고에 틀이없는 유대식 선배께서 유창한 글로 이페이지를 담당해 주시기로 한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한다.

(편집부)

한인회보 1983년 제1호
 발행인: 신 호 범
 편집인: 박 건 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reet N. E.
 SEATTLE, WA 98125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206) 362-4500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숭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휘호

공관및지사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98124 TEL:(206) 362-4500		씨애틀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1125 UA Bldg .6th Ave (206)682.0132
대한무역진흥공사 씨애틀무역관 900-4th Ave #1245 Seattle WA. (206)623·3588/9		한국일보씨애틀지사 THE HANKOOK ILBO 7320-20St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5·9222
	中央日報 (206)838·3155 927·5915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1 (206) 622-7821
	美 洲 東 亞 日 報 社 THE ORIENTAL DAILY NEWS (206) 244~9930	韓進液運 HANJIN CONTAINER LINES, LTD. KOREAN FLAG SERVICE 157 YESLER WAY SEATTLE, WA 98104 ☎(206) 447-9422

한인업소 안내

여 행 사 김여행사 KIM s TRAVEL SERVICE #619 Lloyd Bldg 603 Stewart St Seattle WA 98101 (206)624·2227/8	동서여행사 EAST 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635 Seattle WA98101 (206)623·2157/8 367·1935	타코마 한국여행사 11222 Bridge port way . S.W. Tacoma. WA 98499 588-0333/7788 이 주 응
가나안 여행사 CANAAN TRAVEL SERVICE #107·409 Maynard Ave. So Seattle WA98104 (206)6246461	킹여행사 KING TRAVEL AGENCY 504 S. King St. Seattle. WA98104 (206)624·9844	식 품 점  중앙식품 9641-15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762·5620
 대한여행사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te#5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98003 Tacoma(206) 952·5595 Seattle(206)941·8866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2636 2nd Ave Seattle WA 98121 (206) 623·9290	아줌마식품 AHJUMMA ORIENTAL FOOD 31260 Pacific Hwy. S Federal Way. WA98003 (206)941-1123
헨리장여행사 9002 12 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2781	태평양여행사 PACIFIC TRAVEL SERVICE 5649-17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 767·7390	그랜드식품 GRAND FOODS 8512-20th NE Seattle WA 98115 (206) 525·8334
한인업소안내 광고 씨애틀한인회 전화 (206) 362-4500.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
 (9시~6시)
 367-5570/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시애틀)
 927-4996(타코마)

박창식 내과

진료과목

- 일반내과 (소화기내과)
- 순환기 내과 (심장병·고혈압)
- 건강상담 당뇨병

801 BROADWAY #912
 Heath Prof Bldg 98122

624-5867 827-4014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탐스종합도매상 3306 So.170th St Seattle (206)243-7040(타) 582-1158	장미상회 1414 So.324th St. Federal Way WA .98003 (206)941-8144	사보이식당 선지국 해장국 전문 622-7424
제일식품 21405 Hwy 99 #A Lynnwood WA98036 (206)774.4103	부한식품공장 방앗간 마켓 각종떡 두부 참기름 10001 KLINE ST. S.W TACOMA. WA. 98499 TEL. (206) 588-7300	 한일각 Hanil Korean Restaurant 409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1st Fl. Bush Hotel in China Town) (206) 587-0464/0465
서울식품 6405 Steilacoom Blvd SW Tacoma (206)588-9222	한미상회 ORIENTAL FOODS & GIFTS 9618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 535-2423	자동차수리 101 바디샵 525-5778 미국차, 외국차, 바디 페인트 무료견적 All Insurance Work 10059 Aurora N Seattle
동양식품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98125 (206)365-5540	SEAHURST HANDY MART 15219-21 St Ave S.W. Seattle WA 98166 (206) 242~ 2050	레이크우드 자동차 정비 ★튼업·부레이크 전문 ★최신장비 (SUN SCOPE) McChord 공군부대 입구 (EXXON)588-398
한국식품 우와지마앞 682-2992 514.6th Ave S. Seattle 98104	왕궁식당 시애틀 수타국수 전문, 중화요리 오전11시30분 ~ 오후10시까지, 7119 Empireway S.723-1958	올림픽 바디샵 (타코마) 성실봉사, 무료견적, 무료토잉 ◆보험수리 ◆청구대행 4040-100th SW Tacoma 584-286
현대식품 10402-16th Ave S.W. Scattle WA 98146 (206)762-4792	산장 중화 및 한식요리 연회석완비, 나이트클럽 10203 Sales Rd Tacoma 582-9889	타코마오리엔탈바디샵 BODY & PAINT 등 일체 한국인 특별할인 보험수리전문 582-1364, 584-1938
켄트상회 23633-104th Ave S.E. Kent WA 98031 (206)852-8388	영업시간 아침 11시30분~밤10시 11101 Pacific Hwy SW 588-9262	CHOI's Auto Service 국내차중 포드, 닷지, 세보레 도요다 볼보, 닷선, 혼다만 취급. 딜러 8년경험의 524-2960
아로라식품점 16300 Aurora Ave N. (206)542-9489/6577	국일관 한국식 중화요리 수타국수 각종연회석완비 영업시간 11:30am ~ 10:30pm 12408 Pacific Hwy SW Tacoma 582-7720	Greenlake Auto Electric (자동차 전기전문 수리) 국내외차 스타터 및 올터네이터각종라이트 브레이크 엔진튼업 아크웰딩Emiss 유명메이커배터리 취급. Control (개스배기량검사) 782-48 6501 Aurora Ave. N. Seattle
김치마켓 KIMCHEE MARKET 6400 So. Yakima Tacoma WA 98408 (206)475-6128	한국관 ☎ 622-1936 212 4th Ave So. Seattle 98104	Skips Body Shop 838-38 완벽한기술, 완전한수리 무료토잉, 인슈런스대리취급 교보출에게는 할인봉사 839-519 24433 Pacific Hwy So. Kent
오대양식품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363-6850 • 365-9844	장미원 오후4시~새벽2시 금, 토는 새벽4시 8904 Aurora N Seattle 525-1335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회계사무소	보험	선물센터
김종구 회계사무소 공인세무사 장부정리, 개인 인감, 362-8370 신속 정확한 서비스 367-0655 절대 비밀보장, 재무 상담환영 13051 37th Ave. NE Seattle	박유철 종합보험 자동차, 화재, 상업 생명, 주택  241-2888(사무실) 362-9565(집)	오로라선물센터 14107 Aurora Ave. N. 362-8617 Seattle, WA 98133(집) 454-2087
심상연 인컴 택스 중소기업장부정리, 세무상담, 일반인컴택스 은행용자 상담, 퇴직연금상담, 공증업무취급 10307 Bridgeport Way Tacoma 474-1802 582-1644	정문언 종합 보험 ★자동차 ★생명 ★주택 ★건강 ★사업 10059 Aurora N. Seattle 523-9111, 523-8944(집) 582-8989(타코마)	미도파백화점 런던포그 딜러십 고급화장품 비타민, 골프세트 비데오, 칼라TV, 악세사리, 시계일절 테니스라켓 584-1991
이규영 계리사 컴퓨터로 장부정리 일반 인컴택스, 중소기업 장부정리, 퇴직연금상담, 세무상담 공증업무, 기밀절대보장 2809 4th Ave Seattle 623-4181-3	에퀴터블 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 전문  588-3112(타코마) 624-8380(시애틀)	타코마종합선물센터 골프채, 테니스라켓, 전기제품 오메가시계, 화장품일절 11602 Pacific Hwy Tacoma Bus 581-1100, 582-6044 Res 581-0515(24시간)
인쇄소 쇼어라인 그래픽스 3008 NE 127th St Lake City Way 와 127가 364-6632	최영세 에퀴터블 보험 생명·건강·자동차·주택  Bus: 624-8380 Res: 365-0085	신신 선물센터 *시계 *보석 * 런던포그 딜러십 회득 * 화장품 일체 * 골프세트 * 비타민 582-2975 8518 So. Tacoma way
뉴모드 인쇄소 6433 So. Tacoma way Tacoma 475-7429	이형석-보험 자동차 전문 생명·교육성·장래성·사업·건강·주택 Res. 226-6151 Off. 285-3151	테레비 꽃집 한국 테레비 냉동 회원비 없음 (전 멜로디 T.V.) 비데오 테이프 대여함. 31319 Pacific Hwy S. Federalway 98008 839-7155, 952-5140 타코마
Express Copy & Print 각종인쇄, 명함, 청첩장, 회보 등등... 여권, 결혼사진 ■ 사진현상 ☎789 8415 Greenwood Ave N. Seattle 789-7272	화장품 POLA 화장품 Director Hyuk Han 미용상담: 581-5151, 5152 세일스할분구함, 전화환영 964-5375	킹 TV (우와지마야 앞) *쏘니 딜러십 회원 모집중 *한국에서 직수입한 MBC KBC 한국 비데오 ☎624-9815, 747-7234
BRIM PRESS (각종 한글 및 영문인쇄)  450 S.W. 153rd SEATTLE, WA 98166 (206) 433-8811	풀라화장품 Director mrs 박 배달가능 Lakecity 365-1230 *미용상담 환영	PACIFIC 531-8408 이종만 ROSEHOUSE * 퍼시픽 장미의 집 * 실내장식, 결혼, 개업, 파티, 장례, 모든 꽃화환 11812 Pacific Ave. Tacoma,
하바하바사진관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206)475-6226	월드북 백과사전 (WORLD BOOK) 정가보다 \$ 100 싸게 구입요령안내 심재영 762 - 2265	스트디오 꽃집 결혼약혼식꽃 실내용화초 각종축하용화분 장례식꽃 4222 E. Madison Seattle WA 98112 325-5032 367-1534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병원 · 한방원	홍인표박사 신경·정신과전문의	중국한의원
업도승산부인과 Kent Medical Center inc P.S 222 N.State .Kent WA (206)872·3400 631·5863	901 Boren Ave Cabrin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605 So. Jackson St Seattle. WA 98104 (206)628 - 0950 한 의사 유 환 복
로명재산부인과 *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206)833·2580 * 1711 324th PI Federal Way .WA 98003 (206)927·8440	HOI W. LEE 치과 1011 N. 2nd St Renton (206)226·8151 226·4467	박약국 8512 -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527·3020 3010
이창준 산부인과 10109 Plaza Dr S.W. Tacoma WA. 98499 (206)584·4355/4357	HAS AN APPOINTMENT WITH ROGER D. SOHN, D.D.S., P.S. 110 D St S . E. A-u Auburn.WA 98002 (206) 833 - 3770	부동산 사업체 전문부동산 노명건 사업체를 사할때나 파실때는 사업체 전문부동산 회사로 연락하여주세요. 사업체 투자상담에는 물론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VR BUSINESS BROKERS 774-5200 1-568-5551(낮) 1-337-2480(밤)
오덕주산부인과 23rd Ave S.W. & Meridian So Puyallup WA 98371 (206) 848·4453 1624 So. "I" St Tacoma WA. 98405 (206)627·0909	진한방원 461 E. Hastings St. Vancouver B.C. Canada V6A IP5 (604)255·7033	채태용 부동산 *비즈니스 전문 Broker 집 588-4343, 582-5990 사무실 584-2700
박창식내과 801 Broadway #912 Heath Prot Bldg (206)324·5867 827·4014	한성한방원 11226 Bridgeport Way SW Tacoma WA (206) 582·9060 537·2068	오화실 부동산 주택전문 455·9571 455·8370(사무실)
이영주치과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WA 98499 (206) 581·1412 *Stevens Dental Cental 20728 - 76th Ave W. Edmonds (206)775·3456	보혜사한방원 8107 - 22th Ave S.W. Seattle WA. 98106 (206)762·8566/6493	김현중 부동산 *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 각종사업, 주택, 토지투자 상담 774-7828, 774-3839
조병규치과 * 215 N. 125th St Seattle WA (206)367·5570 776·8512	제일한방원 17421 . 30th .Dr S.E. Bothell. WA 98011 483-8136 이명심	장국경 부동산 244-9114 Washington Realty는 모텔매매, 건축물전문. 건축자금 융자도 5년까지 해드립니다. 사실분, 파실분들 연락바람 838-3324(집)
* 1815. So. 324 th PI Federal Way (206) 838·3180(Seattle) 927·4996(Tacoma)	동양한방원 16715 Park Ave S. Spanaway (206) 537·9592	양장점 세탁 핑크양장점 프라자원아워크리너 PINKY LRESS MAKING 9741 Holman RD. N.W. Seattle. WA 98117 784-1624 김재희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육성하자

골동품 피아노	간판 페인트	건축및집수리
HO PARK ANTIQUES Oriental Antiques Shop Importer & Wholesale Oil Painting Portraits 2018 2nd Ave. Seattle. WA 98121 206-343-5577	Kim's Art Sign & Painting * 미술간판, 실내장식(Bar, 식당) 내부페인트 및 수리 곰보벽, 벽지 878-1445(시애틀) 474-4998(타코마)	백광호 건축설계 사무소 13434 - 40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206) 365-2380
동양 골동품점 ORIENTAL GIFT SHOP 8817 Pacific Ave. Tacoma, WA 98444 BUS: 535-6230 RES: 531-9225	PARK'S SIGN 242-6801 미술간판, 한문, 한글, 영어 오후3시~ 연락바람 367-0123(낮) 525-7680	킴스 종합건설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DAE J. KIM Telephone (206) 771-8019
Oriental Antiques 한국골동품 도자기, 서화, 목기 매매 및 감정 14109 Aurora Ave. N. 시애틀 367-2978	파리공예사 각종간판, 실내외 페인팅 라이선스와 본드. 무료견적 타코마 473-3819 시애틀 523-7057	ALOHA PACIFIC PLUMBING 변기 세면기 욕탕 부엌싱크 수리 및 363-5383(집) 362-6368(사무실) Aloha PP205QQ
세계피아노사 콜러 & 켈볼 대리점 월부판매, 각종중고 그랜드 피아노 365~5540(시애틀), 582~8753(타코마), 584~1545	SONG'S 페인팅 *내부 및 외부 *천장, 벽, 도배(월페퍼) 무료견적 곰보전문 ☎525-7680, 546-1572	권스 랜드스케이핑 콩크리트, 펜스 잔디심기, 돌쌓기, 공터메꾸기 및 불도져 작업 정원손질일체 무료견적 821-1960(집) 821-1178(bus)

교회안내

시애틀 천주교회 성조지 성당 매주일 오후 1시 5306 13th Ave S Seattle 838-5924	워싱턴 한인 루터 교회 담임목사 박기영 Washington Korean Lutheran Church 740 South 128th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68 (206) 243-8555, 242-6600 (Church Office) 242-6607 (목사관) 대예배주일 오후 12:30 · 저녁예배 4:30 (성경강해) 수요집회: 밤 7시 금요일 야기도: 밤 10시 (금)
타코마 천주교회 성 피터 & 바오로 성당 매주일 오전 10시 15분 Portland Ave & 34th Tacoma 927-9533	시애틀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정하경 KOREAN BAPTIST CHURCH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542~4391 예배시간: 오후 1시
한인 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창수 425 N.E. 95th. Seattle. WA 98115 367~2178 예배시간: 오후 1시	시애틀 성은교회 담임목사 성윤경 4401 2nd Ave N.E. Seattle. WA 98105 예배시간: 주일 오후 1시
한국 벤틀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영규 BOTHE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N 예배시간 오후 1시 546~5214 19358 3rd Ave N.W. Seattle. WA 98177	시애틀 제일장로교회 11508 Rooseveltway N. E. Seattle. WA 대예배 오전 11시 오후 7시 98125 776~5749

교회안내

<p>씨애틀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중원 ■ 주일예배 오전11시 ■ 교회학교 오전10시 ■ 중고등부예배 오전10시30분 ■ 금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226-7864, 632-5163 7시30 1415 NE 43St. Seattle (워싱턴 대학 옆)</p>	<p>한인 연합 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영희 ◆ 주일예배 오후1시 전도사 이석복 ◆ 주일학교 오후1시 ◆ 한글학교 오후12시30분 1315 N 160th St Seattle 전화 교회 367-5858 집 774-1885</p>
<p>웨더럴 웨이 에덴장로교회 주일대예배 : 오후1시. 삼일기도회 : 오후7시 주일학교 오후1시 매일새벽 : 오전5시반 941-9684 839-6744 김성권 목사, 1829 S 308th St. Federalway 임규영 전도사</p>	<p>렌톤 한인 교회 담임목사 김경원 ● 주일대예배 : 오전11시, ● 각구역예배 : 금요일 오후7시 전화 : 226-2703 교회위치 : 3031 NE 10th St Renton</p>
<p>씨애틀 한인 형제교회 ● 주일대예배 : 오후1시 ● 주일저녁찬양예배 : 7시 ● 수요일기도회 : 7시반 담임목사 최용걸 7th & Spring(씨애틀 다운타운) 365-6691 367-0183</p>	<p>타코마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문창선 주일 : 성경공부 9시반, 낮예배11시, 밤예배7시 수요일기도회 오후 7시, 토요일새벽기도 오전6시 5602 112th St. SW Tacoma 581-3144, 582-1829</p>
<p>성복음 성결교회 담임목사 윤 한 두 14537 30 th Ave N.E. Seattle WA 98115 예배안내 오후 1시 367-1490</p>	<p>한인 복음교회 담임목사 이 영 준 811 5th Columbia st Seattle WA 98101 예배안내 오전 11시 363-6789</p>
<p>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담임목사 정남식 · 주일예배 1부 : 10시, 2부 : 11시반 · 저녁예배 : 7시반 · 주일새벽기도회 : 6시 · 주일학교 : 11시반 · 한글학교 : 주일10시 · 삼일기도회 : 7시반 · 영어교실 : 화, 목 오후6시반 9시반 3010 S. 66th, 472-9463, 475-4709(목사관)</p>	<p>한인 선교교회 담임목사 송 천 호 515 So 312 st Federal Way WA 98003 예배안내 1부오전 9시 30분 2부오후 12시 30분 838-4599 922-1611</p>
<p>씨애틀 한인안식일 교회 안식일 대예배(토)안교9시반, 설교11시 성경연구회(화)오후7시반, 담임목사 유재상 금요일저녁예배 오후7시반 부 목사 김준팔 300 W Saar St Kent 854-1125, 8490</p>	<p>순복음 씨애틀 교회 담임목사 박 성 수 1632Broad way Ave P.o. Box 20305 Seattle WA. 98102 예배시간오후 1시 30분 546-1612</p>
<p>씨애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상 구 2728 N.E. 100th St Seattle WA. 98125 예배시간 1부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367-4561 523-2728</p>	<p>씨애틀 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최 태 원 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예배시간 오후 1시 242-0315</p>
<p>서부 영생 교회 담임목사 한 상 국 9252-16th Ave S·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주일 아침 11시 주·수저녁 7시 금요일기도회 8시 목사관 767-0693</p>	<p>와싱턴 중앙교회 담임목사 유 의 선 601-9 th Ave. S·E Puyallup. WA. 98371 예배시간 주일 1시 30분 수요일 7시 30분 철야기도회 매월마지막 금요일 10시 교회 927-4105 목사관 941-8170</p>
<p>씨애틀 중앙 장로교회 담임목사 정 연 반 9421 18th Ave. S. W. Seattle WA. 98106 예배시간 오후 1시 763-8952</p>	<p>에베렛 한인교회 담임목사 고 필 균 EVERETT OF KOREAN CHURCH 1St Casino RD. EVERETT . WA 98204 353~4143 예배시간 오후 1시 30분</p>

이 규 영 계 리 사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일반 인컴 텍스
- ※ 중소기업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세무상담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2809 4th Ave. Seattle
 623 - 4181 ~ 3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정육전문 취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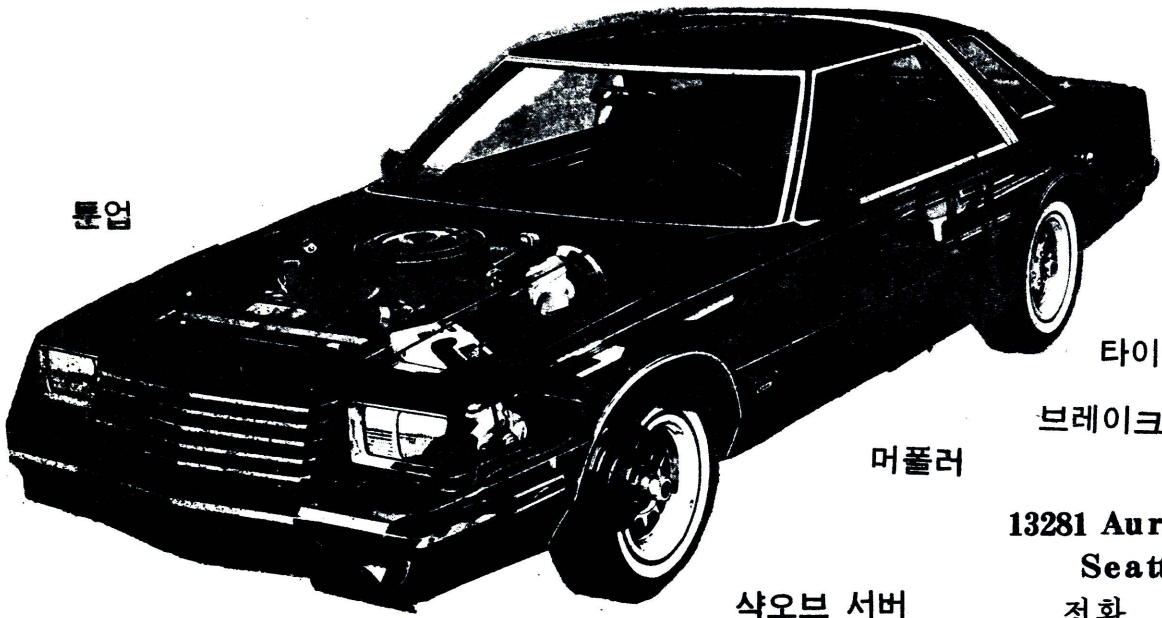
- ★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박약국
- ★ 씨애틀 최초의 한국서적센터

귀국선물센터 오픈!

8512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PHONE (206) 525-8334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교포들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문업

타이어

브레이크

머플러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삭오브 서버

전화 362 ~ 449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트랜스 및송

代表 이 점 태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